

# 분야별 핀테크 스타트업 동향

▣ 박 병 선\*

## 1. 개요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업과 기업, 기업과 사용자간의 거래 행위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잦은 빈도로, 보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업적 거래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거대하고 경직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의해 등장한 핀테크(Fintech)는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대폭 효율화하는 한편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커버하지 못하고 있던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사용자들의 pain point를 경감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의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 기술 및 기업이 다루는 분야는 광범위하여 결제 서비스에서부터 인터넷 은행, 전자화폐까지 기존 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동시에 새로운 영역까지 개척하고 있으며, 핀테크 분야에 뛰어들 기업들 또한 다국적 거대 금융기관에서부터 소규모 벤처 기업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술 역량과 숨겨진 니즈 발굴을 통해 핀테크 영역을 개척한 스타트업들은 빠른 속도로 비즈니스와 생활 전반에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원, (043)531-4311, bspark@kisdi.re.kr

본고에서는 지급·결제, 송금, 대출, 투자 및 자산관리, 전자화폐, 금융정보 등 핀테크의 분야별로, 기존 서비스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신규 시장을 개척한 주목할만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조망하고자 한다. 기존 금융기관들 및 IT, 통신사업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전향에 참여하고 있는 지급·결제 및 투자·자산관리 분야에는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거나 효율화하는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 반면, 그 외의 분야에서는 니치(niche)나 은행서비스가 커버하지 못하던(underbanked) 시장을 발굴한 사업자들이 많은 경향이 있다. 분야별·사업 유형별로 주목할만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본문에서는 굵은 글씨로 표기된 기업들에 대해 보다 상세히 다루었다.

<표 1> 분야별 핀테크 스타트업과 사업 유형

	지급·결제	송금	대출	투자·자산관리	전자화폐
기존서비스 대체	<b>Flint</b> , Tipalti	<b>Currency Cloud</b>		<b>Wealthfront</b> , Planwise	
Niche/ Underbanked 시장 발굴	<b>PayNearMe</b> , WePay, AstroPay		Earnest, <b>Kabbage</b> , WeCash	<b>Motif Investing</b> , Personal Capital	<b>Epiphyte</b> , BitPay

## 2. 분야별 핀테크 스타트업 동향

### (1) 지급·결제 분야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 Redwood City에서 설립된 Flint는 스마트폰 앱만으로 기존 POS(Point-of-Sales) 단말기의 역할을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규모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구매자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안전하게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정사각형 모양의 소형 단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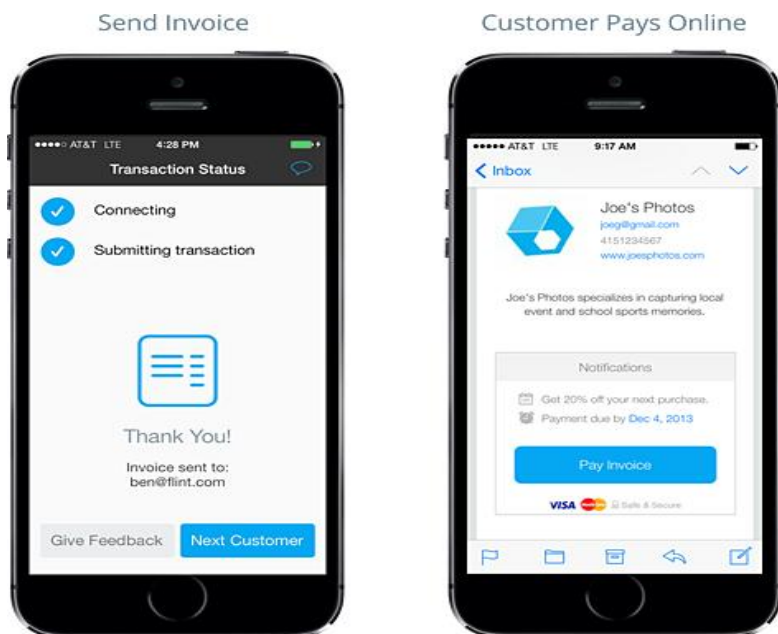
와 전용 앱만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하여 대표적인 핀테크 혁신 사례로 언급되어 온 Square에서 진일보한 Flint는 별도의 단말기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다. 카드 번호의 일부만을 스캔하는 앱 내의 카드 번호 스캔 영역에 카드를 놓고 스캔하고 카드 인증 정보를 입력하면, 결제 정보가 암호화되어 결제가 실행된다. 결제 화면은 아래 그림([그림 1])과 같으며, Flint 앱을 통해 입력한 이미지와 정보는 해당 단말기에 일체 저장되지 않는다.

[그림 1] Flint 앱을 통한 카드 번호 스캔 화면



Flint는 결제와 관련해 소규모 사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간편함이라는 가치를 제공하는데, 사업자들은 앱의 기능을 활용해 간단히 송장을 발송할 수도 있으며([그림 2]의 왼쪽), 고객 역시 별도의 계좌 등록이나 로그인 없이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 링크 상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그림 2]의 오른쪽). 또한 Flint는 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수표, 현금을 통한 결제의 디지털 영수증까지 결제 히스토리 상에서 자동적으로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2] Flint를 통한 송장 발송 및 고객이 받게 되는 결제 요청 페이지



PayNearMe는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 Sunnyvale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계좌나 신용카드 없이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던 현금 결제를 온라인상에서 구현한 업체이다. 이들은 미국인의 25%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unbanked or underbanked), 현금 결제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결제 플랫폼도 이들의 거래 행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점들은 PayNearMe 서비스를 이용해 현금 결제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PayCode를 발급해주며, 구매자가 결제 시점에 PayCode를 제시하고 현금 결제를 하면 사업자는 자신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음을 알리는 알람을 받게 된다. 구매자가 PayCode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인데, 사업자가 이메일, 문자 또는 우편 영수증을 통해 코드를 구매자에게 송부하거나, 구매자가 PayNearMe 웹사이트에서 코드를 발급받거나, 구매자가 사업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결제 행위를 할 경우가 포함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와 구매자 모두가 현금 결제의 신뢰도를 높이

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플랫폼을 통한 결제 및 결제내역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세븐일레븐, Family Dollar, ACE Cash Express 등의 상점이 고객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약 2천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한 상태이다.

## (2) 송금 분야

Currency Cloud는 85%가 기존 은행권에 의해 주도되고 있던 해외 송금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런던을 베이스로 한 스타트업이다. 이 스타트업은 국가별, 은행별, 거래 플랫폼별로 다양한 송금 시스템의 특징들을 반영하여 빠르고 안전하면서도 보편적인 결제가 가능한 기술을 구축하였다.

Currency Cloud의 송금 서비스는 'Regular'와 'Priority'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며, Regular 버전의 경우 전세계 31개국에 3일 이내로 송금 완료가 가능하다. Priority 서비스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212개국에 송금 완료가 가능한 프리미엄 버전이다.

이 서비스는 송금 거래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어필하고 있는데, 빠른 글로벌 송금, 투명한 환율 적용 및 송금 내역 관리 기능이다. Currency Cloud의 Beneficiary Manager는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은행별 계좌 정보를 관리하고, 송금 시점에 국가별 송금 노하우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계좌 정보를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한다. 따라서 번거로운 해외 송금 절차가 보다 빠르게 해결된다.

이와 함께 Conversion Manager는 40여개 외환을 사고 팔 때의 시장 평균 환율을 제공하고, 해당 거래에 최적인 환전 방식을 제시하며, 잔고, 송금 및 환전 내역은 간략한 보고서 형태로 시각화 해 볼 수 있다.

## (3) 대출 분야

2009년 설립된 Kabbage는 소규모 기업들이 자본을 충당할 수 있는 방식을 혁신적

으로 바꾼 대출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Kabbage의 Data Conext 엔진은 소규모 기업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데이터 소스에 접속하여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적정 규모의 대출을 해 주고 있다. 데이터원은 e커머스, 소셜미디어, 회계 자료, 발송 내역 등 실시간 데이터를 포함하며, 이 자료들을 조합해 소규모 기업을 평가하고 유연성 있게 대출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대출 승인이 완료되면, Paypal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Kabbage의 또다른 장점은 은행권 대출에 비해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는 것인데, 7분이면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가 은행권 대출과 대부업 사이의 적정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이미 Kabbage를 통해 10만 여개 이상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총 5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Forbes는 Kabbage에 대해 “운영 자본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Working Capital)”라고 표현한 바 있다.

#### (4) 투자·자산관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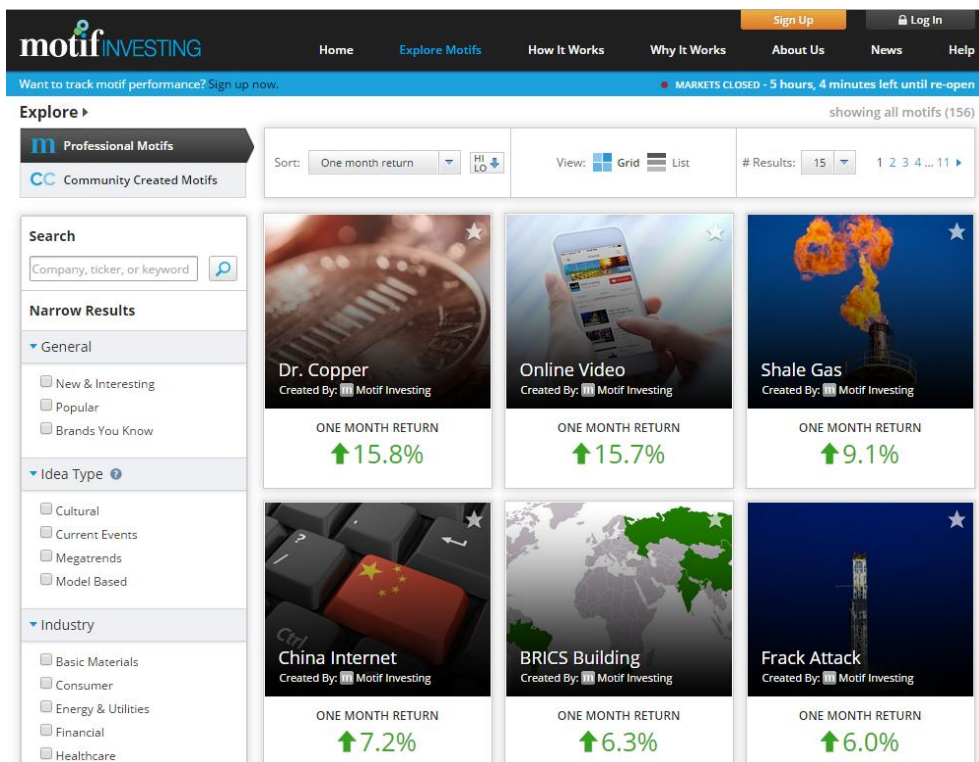
Wealthfront는 스타급 자산관리 매니저들이 시장 상황보다 나은 아웃풋을 낼 수 있다는 가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자동화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Wealthfront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리밸런싱되는 다양한 인덱스 펀드 포트폴리오를 아주 저렴한 비용에, 조세 효율적인(tax efficient) 방식으로 관리해준다.

이 서비스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적절한 타이밍에 트레이드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트레이드 빈도가 잦지 않은 인덱스 펀드에 고객의 자산을 투자하며, 고객 계좌의 세금 지출 상태 참조, 부동산 및 채권 자산의 계좌 재배치 등의 방식을 통해 조세 효율적인 자산 할당 방식을 제안한다.

2012년 San Mateo에서 사업을 시작한 Motif Investing은 투자자들이 경제·산업·정치적 동향 또는 인기있는 투자 전략을 반영해 미리 만들어진 ‘motifs’라고 불리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otif Investing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면, 사용자들은 슬라이드 바 메뉴를 활용해 요인별 가중치를 두어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수 있고(그림 3)), 원할 경우 주식이나 ETF(Exchange Traded Funds) 등을 추가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3] Motif Investing의 투자 포트폴리오 작성 페이지



## (5) 전자화폐 분야

San Francisco를 기점으로 2013년 설립된 Epiphyte는 280여개 핀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한 '2014 Innoribe Startup Challenge'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쥔 스타트업이다. Innoribe는 '국제 은행간 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로부터 펀딩을 받는 스타트업들의 커뮤니티이다.

Epiphyte는 비트코인(Bitcoin) 기반의 국가간 이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된 화폐 플랫폼들을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솔루션은 일반 통화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비트코인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다른 지역의 통화로 인출하는 방식을 통해 전통적인 자금 이체의 영역을 우회한다.

비트코인이 하나의 또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서비스는 금융권의 핵심적인 니즈를 간파하였는데, 기존에 환율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평가절하된 가치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한 BitPay와 같은 서비스와도 차별된다고 볼 수 있다.

### 3. 결 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결제 및 거래, 신기술을 통한 리스크 관리, 고객 신용도 평가, 모바일 banking, 재화 및 서비스 거래, 외환 시장 등을 아우르며 금융의 각 영역에서 핀테크 서비스의 다양한 응용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동향이 우리나라의 핀테크 시장에 시사하는 점은 크게 핀테크 분야의 다양화 필요성과 결제를 제외한 금융분야 관련 규제의 개선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금융 및 핀테크 전문가들 또한 지적하고 있듯, 한국의 핀테크 서비스는 기존 금융권이나 IT기업, 통신사 등의 주도적 참여 하에 지급·결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Alibaba가 Alipay라는 결제 서비스를 먼저 내놓고 餘額寶(위어바오)를 통해 온라인 금융상품 및 자산관리 분야에 진출했듯, 핀테크 역시 결제·송금, 대출, 투자 시장 순으로 금융시장의 발전 수순을 밟아가기 때문에 국내 핀테크 시장이 아직 발달 초기 단계라는 점을 지적하는 분석도 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2014년을 기점으로 핀테크 사업 육성을 기치로 관련 규제



들이 완화된 바 있으나, 사업자들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결제 분야 외에 금융투자업 등의 분야에서는 관련 규제가 여전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스타트업과 같이 새로운 방식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대부업법상 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의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핀테크 역시 금융실명제법의 오프라인상 본인확인 필요성의 규제와 충돌하게 될 것이다.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핀테크 역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클라우드 펀딩 법안이 자본금 규모를 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들이 관련 서비스에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AWI (Australasian Wealth Investments), KPMG Australia and Financial Services Council(FSC), The 50 Best fintech Innovators Report
- CFSI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Innovation, 2013. 5). Financial Technology Trends in the Underbanked Market(Research sponsored by Morgan Stanley).
- BankInnovation (2014. 10. 2). “Epiphyte, Matchmove Win Fintech Startup Challenge”.
- Entrepreneurial Insights (2014. 11. 27). “Trends in Fintech”.
- Forbes (2014. 12. 14). “15 Fintech Startups To Watch In 2015”.
- ZDNet Korea (2015. 4. 6). “핀테크, 금융투자업에 눈 돌려야 하는 이유”.
- <https://www.currencycloud.com/>
- <http://www.epiphyte.us/>
- <https://www.flint.com/>
- <https://www.kabbage.com/>
- <https://www.motifinvesting.com/>
- <http://paynearme.com/en/>
- <https://www.wealthfront.com/>